

메가공무원
이.유.진

2022 군무원 9급 국어 해설

문 1. 다음 중 띄어쓰기가 가장 옳은 것은?¹⁾

- ① 지난 달에 나는 딸도 만날겸 여행도 할겸 미국에 다녀왔어.
- ② 이 회사의 경비병들은 물 썰 틈없이 경비를 선다.
- ③ 저 사과들 중에서 좀더 큰것을 주세요.
- ④ 그 사람은 감사하기는 커녕 적게 주었다고 원망만 하더라.

문 2. 다음 중 파생법으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닌 것은?²⁾

- ① 교육자답다
- ② 살펴보다
- ③ 탐스럽다
- ④ 순수하다

문 3. 다음 중 사자성어가 가장 적절하게 쓰이지 않은 것은?³⁾

- ① 견강부회(牽強附會)하지 말고 타당한 논거로 반박을 하세요.
- ② 그는 언제나 호사우보(虎視牛步)하여 훌륭한 리더가 되었다.
- ③ 함부로 도청도설(道聽塗說)에 현혹되어 주책없이 행동하지 마시오.
- ④ 이번에 우리 팀이 크게 이긴 것을 전화위복(轉禍爲福)으로 여기자.

문 4.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한자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⁴⁾

- ① 오래된 나사여서 마모가 심해 빼기 어렵다.
- ② 평소 절자탁만에 힘써야 대기만성에 이를 수 있다.
- ③ 정신을 수양하고 심신을 연마하는 것이 진정한 배움이다.
- ④ 너무 열중하여 힘을 주다 보니 근육이 만비되었다.

문 5.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⁵⁾

- ① 한번 실패했더라도 다시 도전하면 된다.
- ② 한번은 네거리에서 큰 사고를 낼 뻔했다.
- ③ 고 녀석, 울음소리 한번 구구나.
- ④ 심심한데 노래나 한번 불러 볼까?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6~7)

인류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에 있으며, 인류의 지적 같은 진화는 유대, 기독교, 이슬람이 전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초월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됐거나 힌두, 불교가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자연의 우연한 산물이다.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류의 가치는 동물의 가치와 근본적으로 차별되지 않으며, 그의 존엄성은 다른 동물의 존엄성과 근본적으로 차등 지을 수 없다. 자연은 한없이 아름답고 자비롭다. 미국 원주민이 대지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자연은 모든 생성의 원천이자 젖줄이다. 그것은 대자연 즉 산천초목이 보면 볼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선하고 풍요하기 때문이다. 자연은 무한히 조용하면서도 생기에 넘치고, 무한히 소박하면서도 환상적으로 아름답고 장엄하고 거룩한 모든 것들의 모체이자 그것들 자체이다. 자연은 영혼을 가진 인류를 비롯한 유인원, 그 밖의 수많은 종류의 식물과 동물들 및 신비롭고 거룩한 모든 생명체의 고향이자 거처이며, 일터이자 휴식처이고, 행복의 등지이며, 영혼을 가진 인간이 태어났던 땅이기 때문이다. 자연은 모든 존재의 터전인 동시에 그 원리이며 그러한 것들의 궁극적 의미이기도 하다. 자연은 생명 그 자체의 활기,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의 표상이다. 또한 그것은 인간이 배워야 할 진리이며 모든 행동의 도덕적 및 실용적 규범이며 지침이며 길이다. 자연은 정복과 활용이 아니라 감사와 보존의 대상이다.

문 6. 다음 중 위 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글쓴이의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⁶⁾

- ① 낭만주의자(浪漫主義者)
- ② 자연주의자(自然主義者)
- ③ 신비주의자(神秘主義者)
- ④ 실용주의자(實用主義者)

문 7. 위 글의 구성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⁷⁾

- ① 두괄식
- ② 양괄식
- ③ 미괄식
- ④ 중괄식

문 8. 다음 중 아래의 글을 읽고 추론한 라캉의 생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8)

라캉에 의하면, 사회화 과정에 들어서기 전의 거울 단계에서, 자기와 자기 영상, 혹은 자기와 어머니 같은 양자 관계에 새로운 타인, 다시 말해 아버지, 곧 법으로서의 큰 타자가 개입하는 삼자 관계, 즉 상징적 관계가 형성된다. 이 형성은 제3자가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비집고 들어섬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상징적 질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미 그 질서가 구조적으로 인간에게 기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후천적, 인위적으로 그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인간은 단지 구조되어 있는 그 질서에 참여할 뿐이다.

말하자면 구조란 의식되지 않는 가운데 인간 문화의 기저에서 인간의 행위를 규정함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라캉에게 있어서, 주체의 존재 양태는 무의식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능하다. 주체 자체가 무의식적인 것으로서 형성된다. 그러므로 주체는 무의식적 주체이다.

라캉에게 나의 사유와 나의 존재는 사실상 분리되어 있다. 그는 나의 사유가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라캉의 경우, '나는 생각한다'라는 의식이 없는 곳에서 '나는 존재'하고, 또 '내가 존재하는 곳'에서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라캉은 무의식은 타자의 진술이라고 말한다. 바꾸어 말한다면 언어 활동에서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는 타자로부터 발원되어 우리에게 온 것이다. '무의식은 주체에 끼치는 기표의 영향'이라고 라캉은 말한다.

이런 연유에서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라는 논리가 라캉에게 성립된다. 의식의 차원에서 '내가 스스로 주체적'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허상이다. 실상은, 나의 진술은 타자의 진술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것이다. 나의 욕망도 타자의 욕망에 의해서 구성된다. 내가 스스로 원한 욕망이란 성립하지 않는다.

- ① 주체의 무의식은 구조화된 상징적 질서에 의해 형성된다.
- ② 주체의 의식적 사유와 행위에 의해 새로운 문화 질서가 창조된다.
- ③ 대중매체의 광고는 주체의 욕망이 형성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 ④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는 옳지 않다.

문 9. 다음 중 아래 시의 주제로 가장 옳은 것은?9)

바람결보다 더 부드러운 은빛 날리는
가을 하늘 현란한 광채가 흘러
양양한 대기에 바다의 무늬가 인다.

한 마음에 담을 수 없는 천지의 감동 속에
찬연히 피어난 백일(白日)의 환상을 따라
달음치는 하루의 분방한 정념에 현신된 모습

생의 근원을 향한 아폴로의 호탕한 눈동자같이
황색 꽃잎 금빛 가루로 겹겹이 단장한
아! 의욕의 씨 원광(圓光)에 묻힌 듯 향기에 익어 가니

한줄기로 지향한 높다란 꼭대기의 환희에서
순간마다 이룩하는 태양의 축복을 받는 자
늠름한 일사귀들 경이(驚異)를 담아 들고 찬양한다.

-김광섭, <해바라기>

- ① 자연과 인간의 교감
- ② 가을의 정경과 정취
- ③ 생명에 대한 강렬한 의욕
- ④ 환희가 넘치는 삶

문 10. 다음 중 아래 글의 제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10)

방정식이라는 단어는 '정치권의 통합 방정식', '경영에서의 성공 방정식', '영화의 흥행 방정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애용된다. 수학의 방정식은 문자를 포함하는 등식에서 문자의 값에 따라 등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경우를 말한다. 통합 방정식의 경우, 통합을 하는 데 여러 변수가 있고 변수에 따라 통합이 성공하거나 실패할 수 있으므로 방정식이라는 표현은 대체로 적절하다.

그런데 방정식은 '변수가 많은 고차 방정식', '국내·국제·남북 관계의 3차 방정식'이란 표현에서 보듯이 차수와 함께 거론되기도 한다. 엄밀하게 따지면 변수의 개수와 방정식의 차수는 무관하다. 변수가 1개라도 고차 방정식이 될 수 있고 변수가 많아도 1차 방정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개수에 따라 m원 방정식으로, 상황의 복잡도에 따라 n차방정식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 4차 방정식까지는 근의 공식, 즉 일반해가 존재하므로 해를 구할 수 없을 정도의 난맥상이라면 5차 방정식 이상이라는 표현이 안전하다.

- ① 수학 용어의 올바른 활용
- ② 실생활에서의 수학 공식의 적용
- ③ 방정식의 정의와 구성 요소
- ④ 수학 용어의 추상성과 엄밀성

문 11. 다음 중 ㉠~㉣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¹¹⁾

먼 곳의 물체를 볼 때 물체에서 반사되어 나온 빛이 눈 속으로 들어가면서 각막과 수정체에 의해 굴절되어 망막의 앞쪽에 초점을 맺게 되면 망막에는 초점이 맞지 않는 상이 맺힘으로써 먼 곳의 물체가 흐리게 보인다. 이것을 근시라고 한다.

근시인 눈에서 보고자 하는 물체가 눈에 가까워지면 망막의 (㉠)에 맺혔던 초점이 (㉡)으로 이동하여 망막에 초점이 맺혀 흐리게 보이던 물체가 선명하게 보인다. 그리고 이 지점보다 더 가까운 곳의 물체는 조절 능력에 의하여 계속 잘 보인다.

이와 같이 근시는 먼 곳의 물체는 잘 안 보이고 가까운 곳의 물체는 잘 보이는 것을 말한다. 근시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눈 속에 맺히는 초점이 망막으로부터 (㉢)으로 멀어져 가까운 곳의 잘 보이는 거리가 짧아지고 근시의 정도가 약하면 꽤 먼 곳까지 잘 볼 수 있다.

㉠ ㉡ ㉢

- ① 앞쪽 - 뒤쪽 - 앞쪽
- ② 뒤쪽 - 앞쪽 - 앞쪽
- ③ 앞쪽 - 뒤쪽 - 뒤쪽
- ④ 뒤쪽 - 앞쪽 - 뒤쪽

문 12. 다음 중 ㉠을 가리키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¹²⁾

“히, 참, 세상 일두…….”

마을 갔던 아버지가 언제 돌아왔는지,

“운초시택두 말이 아니어. ㉠그 많은 전답을 다 팔아 버리구, 대대루 살아오든 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드니, 또약상꺼지 당하는 걸 보면…….”

남쪽불 밑에서 바느질감을 안고 있던 어머니가,

“증손이라곤 기집에 그 애 하나뿐이었지요?”

“그렇지. 사내에 둘 있든 건 어려서 잃구…….”

“어쩌든 그렇게 자식복이 없을까.”

-황순원, <소나기>중에서

- ① 雪上加霜
- ② 前虎後狼
- ③ 禍不單行
- ④ 孤掌難鳴

문 13. 밑줄 친 말이 한자어와 고유어의 결합이 아닌 것은?¹³⁾

- ① 이번 달은 예상외로 가윗돈이 많이 나갔다.
- ② 앞뒤 사정도 모르고 고자질을 하면 안 된다.
- ③ 불이 나자 순식간에 장내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 ④ 두통이 심할 때 관자놀이를 문지르면 도움이 된다.

문 14. 다음 중 아래의 작품과 내용 및 주제가 가장 비슷한 것은?¹⁴⁾

동풍(東風)이 건듯 부러 적설(積雪)을 헤터 내니
창 밖기 심근 매화 두세 가지 띄여세라
긋득 냉담(冷淡)흔디암향(暗香)은 브스일고
황혼의 달이 조차 버마틱빗췌니
늦기난 닷 반기난 닷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매화 것거 내여 님 겨신 디보내오져
님이 너르불고 엇더타 너기실고

꼬깃고 새 님 나니 녹음이 싯렛닐던
나워(羅幃) 적막하고 수막(繡幕)이 뷔여 있다
부용(芙蓉)을 거더 노코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긋득 시르웁디날은 엇디 기뻛던고
원앙금(鴛鴦錦) 버혀 노코 오색선 플터 내여
금자회견화이서 님의 옷 지어내니
수품(手品)은카니와 제도도 마즈시글
산호수 지게 우희백옥함의 다마 두고
님의게 보내오려 님 겨신 디브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홀시고
천리 만리 길히뉘라셔 츠자갈고
니거든 여러 두고 날인가 반기실가

-정철, <사미인곡> 중에서

- ①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
고인을 못 뵈도 녀던 길 알픽잇닉
녀던 길 알픽잇거든 아니 녀고 엇덜고
- ② 삼동에 베투 입고 암혈(巖穴)에 눈비 맞아
구름 낀 별뉘도 췌 적이 없건마는
서산에 해 지다 하니 눈물 겨워 하노라
- ③ 뗏버들 갈히 것거 보내노라 님의
손터자시는 창 밖기 심겨두고 보쇼셔
밤비에 새 님 곳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쇼셔
- ④ 반중(盤中) 조홍(朱紅) 감이 고아도 보이 다
유자 안이라도 품엄죽도 다마 는
품어 가 반기 리 업슬새 글노 설워 님이다

문 15.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¹⁵⁾

- ① 발가숭이
- ② 깡충깡충
- ③ 뽕정다리
- ④ 오뚝이

문 16. 다음 중 아래 글의 내용을 포괄하여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16)

주체 경어법은 용언에 선어말 어미 ‘-시-’를 넣음으로써 이루어진다. 만약 여러 개의 용언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라면 일률적인 규칙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문장의 마지막 용언에 선어말어미 ‘-시-’를 쓴다. 또한 여러 개의 용언 가운데 어휘적으로 높임의 용언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용언을 사용해야 한다.

- ① 할머니, 어디가 어떻게 편찮으세요?
- ② 어머님께서 돌아보시고 주인에게 부탁하셨다.
- ③ 선생님께서 책을 펴며 웃으셨다.
- ④ 할아버지께서 주무시고 가셨다.

문 17. 아래의 글에 나타나지 않는 설명 방식은?17)

텔레비전에서는 여러 종류의 자막이 쓰인다. 뉴스의 경우, 앵커가 기사를 소개할 때에는 앵커의 왼쪽 위에 기사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핵심을 추려 제목 자막을 쓴다. 보도 중간에는 화면의 하단에 기사의 제목이나 소재목을 자막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보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나 세부 자료도 자막으로 보여준다.

관객이나 시청자가 읽을 수 있도록 화면에 보여 주는 글자라는 점에서 영화에서 쓰이는 자막도 텔레비전 자막과 비슷하게 활용된다. 그런데 영화의 자막은 타이틀과 엔딩 크레딧 그리고 번역 대사가 전부이다. 이는 모두 영화 제작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된다. 번역 대사는 더빙하지 않은 외국영화의 대사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텔레비전에서는 영화에서 쓰는 자막을 모두 사용할 뿐 아니라 각종 제목과 요약 내용을 나타내기도 하고 시청자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 말과 감탄사를 표현하기도 한다. 음성으로 전달할 수 없는 다양한 정보를 제작자의 의도에 맞게끔 자막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 ① 정의
- ② 유추
- ③ 예시
- ④ 대조

문 18. 다음 중 (가)~(다)를 문맥에 맞는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18)

최근 수십 년간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공격적인 환경보호 조치들을 취해왔다.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살충제와 독성 화학물질의 확산, 동식물의 멸종 위기 등을 우려한 각국의 정부들은 인간의 건강을 증진하고 인간 활동이 야생 및 원시 지역에서 만들어 낸 해로운 결과를 줄이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투자해왔다.

(가) 그러나 이러한 규제 노력 가운데는 막대한 비용을 헛되이 낭비한 것들도 상당수에 달하며, 그중 일부는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기도 했다.

(나) 이 중 많은 조치들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테면 대기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수십만 명의 조기 사망과 수백만 가지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었다.

(다) 예를 들어, 새로운 대기 오염원을 공격적으로 통제할 경우, 기존의 오래된 오염원의 수명이 길어져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대기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다.

- ① (나) → (가) → (다)
- ② (나) → (다) → (가)
- ③ (다) → (가) → (나)
- ④ (다) → (나) → (가)

문 19. 다음 중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수사법이 쓰인 것은?19)

흰 수건이 검은 머리를 두르고
흰 고무신이 거친 발에 걸리우다.

흰 저고리 치마가 슬픈 몸집을 가리고
흰 띠가 가는 허리를 질끈 동이다.

-윤동주, <슬픈 족속>

- 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 ② 나의 마음은 고요한 물결
- ③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 ④ 의(義) 있는 사람은 옳은 일을 위하여는 칼날을 밝습니다

문 20. 밑줄 친 말의 표기가 잘못된 것은?20)

- ① 배가 고파서 공기밥을 두 그릇이나 먹었다.
- ② 선출된 임원들이 차례로 인사말을 하였다.
- ③ 사고 뒤처리를 하느라 골머리를 앓았다.
- ④ 이메일보다는 손수 쓴 편지글이 더 낫다.

문 21. 다음 중 아래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²¹⁾

어떤 사람은 이곳이 옛 전쟁터였기 때문에 물소리가 그렇다고 말하나 그래서가 아니라 물소리는 듣기 여하에 달린 것이다.

나의 집이 있는 산속 바로 문 앞에 큰 냇가 있다. 해마다 여름철 폭우가 한바탕 지나가고 나면 냇물이 갑자기 불어나 늘 수레와 말, 대포와 북의 소리를 듣게 되어 마침내 귀에 못이 박힐 정도가 되어버렸다.

나는 문을 닫고 드러누워 그 냇물 소리를 구별해서 들어 본 적이 있었다. 깊숙한 숲속에서 울려 나오는 술바람 같은 소리, 이 소리는 청아하게 들린다. 산이 찢어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 이 소리는 격분해 있는 것처럼 들린다. 못 개구리들이 다투어 우는 듯한 소리, 이 소리는 교만한 것처럼 들린다. 수많은 축(筑)이 번갈아 울리는 듯한 소리, 이 소리는 노기에 차 있는 것처럼 들린다. 별안간 떨어지는 천둥 같은 소리, 이 소리는 놀란 듯이 들린다. 약하기도 세기도 한 불에 찻물이 끓는 듯한 소리, 이 소리는 분위기가 있게 들린다. 거문고와 궁조(宮調)·우조(羽調)로 울려 나오는 듯한 소리, 이 소리는 슬픔에 젖어 있는 듯이 들린다. 종이 바른 창문에 바람이 우는 듯한 소리, 이 소리는 회의(懷疑)스러운 듯 들린다. 그러나 이 모두가 똑바로 듣지 못한 것이다. 단지 마음속에 품은 뜻이 귀로 소리를 받아들여 만들어 낸 것일 따름이다.

-박지원, <일야구도하기> 중에서

- ① 직유와 은유를 활용하여 대상을 묘사하였다.
- ② 세심한 관찰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 ③ 일상에서의 경험을 자기 생각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 ④ 다른 이의 생각을 반박하기 위하여 서술하였다.

문 22. 밑줄 친 '보다'의 활용형이 지닌 의미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²²⁾

- ① 어쩐지 그의 행동을 실수로 볼 수가 없었다.
- ② 손해를 보면서 물건을 팔 사람은 없다.
- ③ 그는 상대를 만만하게 보는 나쁜 버릇이 있다.
- ④ 날씨가 좋을 것으로 보고 우산을 놓고 나왔다.

문 23. 다음 중 '을'이 '동사의 격률'에 따라 대화를 한 것은?²³⁾

- ① 갑: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을: 무슨 일이지요? 지금 급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 ② 갑: 글씨를 좀 크게 써 주세요.
을: 귀가 어두워서 잘 들리지 않는데 좀 크게 말씀해주세요.
- ③ 갑: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을: 저는 매우 부족한 사람이라서 제대로 도와드릴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 ④ 갑: 여러 침대 중에 이것이 커서 좋은데 살까요?
을: 그 침대가 크고 매우 우아해서 좋군요. 그런데 좀 커서 우리 방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문 24. 아래의 글에서 밑줄 친 단어 중 고유어에 해당하는 것은?²⁴⁾

절간의 여름 수도(修道)인 하안거(夏安居)가 끝나면 스님들은 바람을 메고 바리를 들고서 동냥 수도에 나선다. 이 동냥이 경제적인 구걸로 타락된 적도 없지 않지만 원래는 중생으로 하여금 자비를 베풀 기회를 줌으로써 업고(業苦)를 멸각시키려는 수도 행사였다.

- ① 동냥
- ② 구걸
- ③ 중생
- ④ 자비

문 25. 다음 중 밑줄 친 단어를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표기한 것은?²⁵⁾

내 이름은 복연필이다.
어제 우리는 청와대를 다녀왔다.
작년에 나는 한라산을 등산하였다.
다음 주에 나는 북한산을 등산하려고 한다.

- ① 복연필 - Bok Nyeonphil
- ② 청와대 - Chungwadae
- ③ 한라산 - Hanrasan
- ④ 북한산 - Bukhansan

1) ③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띄어쓰기]

복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들’은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또한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줄V터V큰V것’이 원칙이지만 ‘줄터V큰것’으로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 따라서 ‘저 사과들 중에서 줄터 큰것을 주세요.’는 올바르게 띄어쓰기를 한 문장이다.

[오답해설]

① → 지난달에 나는 딸도 만날V결 여행도 할V결 미국에 다녀왔어.
‘이달의 바로 앞의 달’을 의미하는 명사 ‘지난달’은 한 단어로 붙여 쓴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행위를 아울러 함’을 의미하는 ‘겸’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② → 이 회사의 경비병들은 물샧틈없이 경비를 선다.
‘조금도 빈틈이 없이. 물을 부어도 샧 틈이 없다’를 의미하는 부사 ‘물샧틈없이’는 한 단어로 붙여 쓴다.

④ → 그 사람은 감사하기는커녕 적게 주었다고 원망만 하더라.
보조사 ‘는’과 ‘커녕’이 결합한 말로, 앞말을 지정하여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강조하는 보조사 ‘는커녕’은 앞말과 붙여 쓴다.

I 접사와 형태가 같은 의존 명사			
들	의존 명사	소, 개, 닭 들(=들)은 가족이다. (나열 뒤 ‘그런 따위’의 뜻)	
	접사	사람들, 사건들 (복수)	

2) ② [이론 문법 - 형태론 - 단어의 형성]

파생법으로 단어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어근에 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졌다는 의미이다.

‘살펴보다’는 동사 ‘살피다’와 동사 ‘보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오답해설]

① ‘교육자답다’의 ‘-답다’는 일부 명사나 대명사 또는 명사구 뒤에 붙어 ‘특성이나 자격이 있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따라서 ‘교육자답다’는 파생법으로 만들어진 단어이다.

③ ‘탐스럽다’의 ‘-스럽다’는 일부 어근 뒤에 붙어 ‘그러한 성질이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따라서 ‘탐스럽다’는 파생법으로 만들어진 단어이다.

④ ‘순수하다’의 ‘-하다’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따라서 ‘순수하다’는 파생법으로 만들어진 단어이다.

I 합성어와 파생어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어근은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 접사는 실질적 의미 없이 어근이나 단어에 붙어 의미를 더해 주는 역할을 한다. 결국 어근과 접사는 실질적 의미를 가졌는지로 구별된다.	

3) ④ [어휘 - 성어]

‘轉禍爲福(전화위복)’은 재앙과 근심, 걱정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불행한 일을 노력하여 행복으로 바뀌 놓는다는 의미이므로 우리 팀이 크게 ‘이긴 것’을 전화위복(轉禍爲福)으로 여기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轉禍爲福(전화위복)’은 우리 팀이 크게 ‘이긴 것’이 아니라 ‘진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이야기할 때 더 적절하다.

轉禍爲福(전화위복): 재앙과 근심, 걱정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 ≡ 반화위복, 화전위복.

轉 구를 전, 禍 재앙 화, 爲 할 위, 福 복 복

[오답해설]

① 牽強附會(견강부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 ≡ 부회.)
牽 이끌 견, 強 강할 강, 附 붙을 부, 會 모일 회

② 虎視牛步(호시우보): 호랑이같이 예리하고 무섭게 사물을 보고 소같이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뜻으로,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함을 뜻함.
虎 범 호, 視 볼 시, 牛 소 우, 步 걸음 보

③ 道聽塗說(도청도설):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한다는 뜻으로, 길거리에 퍼져

돌아다니는 뜬소문을 이르는 말. ≡ 《논어》의 〈양화편(陽貨篇)〉에 나오는 말이다. ≡ 도설)

道 길 도, 聽 들을 청, 塗 칠할 도, 說 말씀 설

4) ④ [어휘 - 한자어]

다른 문항들은 ‘磨(갈 마)’가 쓰이고, ④만 ‘癱(저릴 마)’로 한자가 나머지 셋과 다르다.

마비(癱瘓): 「1」 「의학」 신경이나 근육이 형태의 변화 없이 기능을 잃어 버리는 일. 감각이 없어지고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다.

「2」 본래의 기능이 둔화되거나 정지되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癱 저릴 마, 瘓 저릴 비

[오답해설]

① 마모(磨耗): 마찰 부분이 닳아서 없어짐.

磨 갈 마, 耗 소모할 모

② 절자탁마(切磋琢磨): 옥이나 돌 따위를 갈고 닦아서 빛을 낸다는 뜻으로, 부지런히 학문과 덕행을 닦음을 이르는 말. ≡ 《시경》의 〈위풍(衛風)〉 〈기오편(淇澳篇)〉과 ≡ 《논어》의 〈학이편(學而篇)〉에 나오는 말이다. ≡ 절마.

切 끊을 절, 磋 갈 자, 琢 다듬을 탁, 磨 갈 마

③ 연마(研磨/練磨/鍊磨): 「1」 주로 돌이나 쇠붙이, 보석, 유리 따위의 고체를 갈고 닦아서 표면을 반질반질하게 함. ≡ 마연.

「2」 학문이나 기술 따위를 힘써 배우고 닦음. ≡ 마연.

研 갈 연 / 練 익힐 연 / 鍊 불릴 연, 磨 갈 마

5) ①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띄어쓰기]

→ 한V번 실패했더라도 다시 도전하면 된다.

‘한 번’은 문맥에 따라 띄어 쓰기도 붙여 쓰기도 한다. 일의 차례나 일의 횟수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 ‘번’은 ‘한 번’, ‘두 번’, ‘세 번’과 같이 띄어 쓴다.

[오답해설]

② ‘지난 어느 때나 기회’를 의미하는 명사 ‘한번’은 한 단어로 붙여 쓴다.

③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인 부사 ‘한번’은 한 단어로 붙여 쓴다.)

④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인 부사 ‘한번’은 한 단어로 붙여 쓴다.

6) ② [독해(비문학) - 주제]

글쓴이는 인류가 ‘우주의 가장자리’에 있다며 ‘진화는 자연의 우연한 산물’이므로 우주적 관점에서 인간과 동물을 차등 지을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자연은 인간과 동물의 ‘어머니’, ‘젖줄’이라며 인간이 자연을 배워야 하고 자연이 감사와 보존의 대상이라 하였다. 따라서 글쓴이는 자연주의자다.

참고)

낭만주의: 꿈이나 공상의 세계를 동경하고 감상적인 정서를 중시하는 창작 태도.

신비주의: 우주를 움직이는 신비스러운 힘의 감지자인 신이나 존재의 궁극 원인과과의 합일은 합리적 추론이나 정화어진 교리 및 의식의 실천을 통하여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초이성적 명상이나 비의(秘儀)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종교나 사상.

실용주의: 19세기 후반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실제 결과가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철학 사상. 행동을 중시하며, 사고나 관념의 진리성은 실험적인 검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

7) ③ [독해(비문학) - 전개 방식 긍정 발문]

글쓴이는 지문의 서두에서 인류의 가치가 동물의 가치와 차별되지 않고 존엄성 역시 차등 지을 수 없다는 내용을 제시하며 자연의 위대함에 대해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해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지문의 마지막에 제시된 인간이 자연에 대해 가져야 할 자세이다. ‘자연은 ~ 인간이 배워야 할 진리이며 모든 행동의 도덕적 및 실용적 규범이

며 지침이며 길이다. ~ 감사와 보존의 대상이다.’는 부분이 궁극적인 주제이므로 글쓴이는 ‘미관식’ 구성 방식을 통해 지문을 전개하는 것이다.

[오답해설]

- ① ‘두괄식’은 ‘글의 첫머리에 중심 내용이 오는 산문 구성 방식’으로 지문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 ② ‘양괄식’은 ‘글의 중심 내용이 앞부분과 끝부분에 반복하여 나타나는 문장 구성 방식’으로 지문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 ④ ‘중괄식’은 ‘글의 중간 부분에 중심 내용이 오는 산문 구성 방식’으로 지문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8) ② [독해(비문학) - 일반 추론 부정 발문]

첫째 문단에서 인간이 후천적, 인위적으로 질서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조되어 있는 질서에 참여할 뿐이라고 하였다. 이에 더해 둘째 문단에서 구조란 의식되지 않는 가운데 인간 문화의 기저에서 인간의 행위를 규정함을 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주체의 의식적 사유와 주체적인 행위에 의해 새로운 문화 질서가 창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해설]

- ① 첫째 문단에서 인간은 구조되어 있는 상징적 질서에 참여할 뿐이라고 서술하였고, 둘째 문단에서는 그러한 질서의 구조는 무의식적으로 인간의 행위를 규정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주체의 무의식은 구조화된 상징적 질서에 의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 ③ 넷째 문단에서 ‘나의 진술은 타자의 진술에 의해 구성’되며 ‘나의 욕망도 타자의 욕망에 의해 구성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대중매체의 광고(타자의 진술)에 의해 주체의 욕망(나의 욕망)이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④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은 나의 사유와 나의 존재를 이어주는 명제다. 생각이 존재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셋째 문단에 따르면 라캉은 ‘나의 사유와 나의 존재는 사실상 분리되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라캉에 따르면 데카르트의 명제는 옳지 않다.

9) ③ [독해(문학) - 현대 운문의 내용 이해]

화자는 해바라기 씨를 ‘생의 근원을 향한 아폴로의 호탕한 눈동자’와 ‘의욕의 씨’에 비유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강렬한 의욕을 주제로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해설]

- ① ‘가을 하늘’, ‘해바라기’와 같은 자연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으나 인간과의 교감은 찾아볼 수 없다.
- ② 1연에서 해바라기가 피어 있는 가을 하늘의 정취가 드러나지만, 이는 해바라기를 둘러싼 배경 묘사일 뿐이므로 작품의 주제로 보기 어렵다.
- ④ 이 작품에서 해바라기의 강인하고 정열적인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환희가 넘치는 삶을 주제로 형상화한 것은 아니다.

[작품 정리]

※ 김광섭, <해바라기>

- 해제: 해바라기가 피어나는 자연의 배경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운 현상과 함께 어우러져 생명에 대한 강한 의욕을 느끼게 한다. 순수 자연의 감각을 시각적 이미지로 잘 표현하고 있다. 파란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떠 있는 해와 그런 해를 바라보고 있는 해바라기를 시인은 감정에 따라 일어나는, 억누르기 어려운 생각의 정념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보고 있으며, 그리고 해바라기의 모습이 태양을 찬양하는 해바라기의 강인하고 정열적인 모습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태양신인 아폴로가 날마다 전차를 몰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늘을 가로질렀으며, 밤에는 거대한 컵을 타고 북쪽으로 흐르는 태양의 해류를 따라 항해한 것 같은 모습으로 표현했다.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해바라기를 보고 느낀 서정적 화자의 서정이 집중적으로 노래되었다기보다는 그것을 주지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미지가 전개된 일종의 주지사라고 할 수 있다. 표현 감각이 통일성을 부분적으로 결여한 데다 이미지 전개에 다소 혼선을 보이고 현학적인 수사를 많이 쓴 것도 이러한 주지적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해바라기의 인상을 화사하고 정열적인 성격으로 빠짐없이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 주제: 해바라기를 통해 보는 생명에 대한 강한 의욕
- 구성
 - 1연: 해바라기의 배경 묘사(가을)
 - 2연: 해바라기의 전체적인 인상
 - 3연: 해바라기 씨가 묻힌 곳 노래
 - 4연: 잎사귀들의 꽃 찬양

10) ① [독해(비문학) - 주제]

첫째 문단의 서두에서는 ‘방정식’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다양한 경우를 제시했으나 결국 ‘수학의 방정식’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문단에서는 방정식을 여러 조건에 따라 구분하여 표현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방정식에 대한 소개를 한 후 변수의 개수에 따라, 상황의 복잡도에 따라 방정식을 구분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일반해를 구하기 어려운 방정식은 ‘5차 방정식 이상’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수학 용어의 올바른 활용’이다.

[오답해설]

- ② 지문에서는 다양한 상황에 ‘방정식’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경우를 소개하고 있으나, 수학 공식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지문에서 찾아볼 수 없다.
- ③ 첫째 문단에서 ‘수학의 방정식’의 정의를 찾을 수 있으나, 둘째 문단은 그에 대한 다양한 양상을 설명한 것일 뿐 분석적으로 구성 요소를 제시한 적은 없다.
- ④ 둘째 문단에서 ‘방정식’이라는 용어를 엄밀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긴 하였으나 ‘방정식’의 추상성을 언급한 부분은 없다.

11) ① [독해(비문학) - 빈칸 추론]

첫째 문단에서 근시는 ‘빛이 ~ 망막의 앞쪽에 초점을 맺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근시인 눈에서는 망막의 ‘앞쪽’에 초점이 맺히기 때문에 ㉠에는 ‘앞쪽’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근시는 망막의 앞쪽에 초점이 맺혀 먼 곳의 물체가 흐리게 보인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 뒤에 제시된 것과 같이 물체가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망막보다 앞쪽에 맺혔던 상이 ‘뒤쪽’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따라서 ㉢에는 ‘뒤쪽’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근시의 경우 망막의 앞쪽에 초점이 맺혀 흐리게 보이고, 물체가 가까워지면 초점이 뒤쪽으로 이동하여 선명하게 보인다고 한다. 근시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은 곧 가까운 곳의 잘 보이는 거리가 짧아진다는 의미이며 이는 물체를 많이 가까이 하여야 초점이 뒤쪽으로 많이 이동해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을 뜻한다. 즉 초점이 망막으로부터 앞쪽으로 더 멀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에는 ‘앞쪽’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2) ④ [독해(문학) - 현대 산문의 내용 이해 + 어휘 - 성어]

㉠은 안 좋은 일이 잇따라 일어나는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손뼉만으로는 소리가 울리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혼자 힘만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맞서는 사람이 없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을 의미하는 ‘孤掌難鳴(고장난명)’은 ㉠을 가리키기에 적절하지 않다.

孤掌難鳴(고장난명): 「1」 외손뼉만으로는 소리가 울리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혼자 힘만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즉 독장난명, 척장난명

「2」 맞서는 사람이 없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 즉 독장난명

孤 외로울 고, 掌 손바닥 장, 難 어려울 난, 鳴 울 명

[오답해설]

- ① 雪上加霜(설상가상):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 즉 설상가설
雪 눈 설, 上 윗 상, 加 더할 가, 霜 서리 상
- ② 前虎後狼(전호후랑): 앞문에서 호랑이를 막고 있으려니까 뒷문으로 이리가

들어온다는 뜻으로, 재앙이 끊임 없이 닥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前 앞 전, 虎 범 호, 後 뒤 후, 狼 이리 랑

③ 禍不單行(화불단행): 재앙은 번번이 겹쳐 옵.

禍 재앙 화, 不 아닐 불, 單 홀 단, 行 다닐 행

[작품 정리]

※ 황순원, <소나기>

• 해제: ‘소나기’는 소년 소녀의 짧고 순수한 사랑을 간결하고 함축적인 문장과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잘 표현한 작품이다. 농촌을 배경으로 한 향토색 짙은 이야기는 한 편의 아름다운 시처럼 읽는 이에게 감동을 안겨 준다. 문학 작품에 사용된 언어의 예술미와 내용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글이다.

• 주제: 소년, 소녀의 순수한 사랑

• 구성

• 발단: 소년과 소녀가 개울가에서 만남

• 전개: 소년과 소녀가 산에 놀러 갔다가 소나기를 만남 함께 개울물을 건넌

• 위기: 소녀가 병이 들 다시 만난 소년과 소녀의 헤어짐 만날 기약이 없음

• 절정·결말: 소녀의 죽음

13) ③ [어휘 - 고유어와 외래어]

‘아수라장(阿修羅場)’은 한자어로만 구성되어 있다.

아수라장(阿修羅場): 싸움이나 그 밖의 다른 일로 큰 혼란에 빠진 곳. 또는 그런 상태.

阿 언덕 아, 修 닦을 수, 羅 벌일 라(나), 場 마당 장

[오답해설]

나머지는 모두 한자어와 고유어가 결합된 단어이다.

① ‘가윗돈’은 한자어인 ‘加外’와 고유어인 ‘돈’이 결합된 단어이다.

가윗돈(加外돈): 정해진 기준이나 정도를 넘어서는 돈.

加 더할 가, 外 바깥 외

② ‘고자질’은 한자어인 ‘告者’와 고유어인 ‘-질’이 결합된 단어이다.

고자질(告者질): 남의 잘못이나 비밀을 일러바치는 짓.

告 고할 고, 者 놈 자

④ ‘관자놀이’는 한자어인 ‘貫子’와 고유어인 ‘놀이’가 결합된 단어이다.

관자놀이(貫子놀이): 귀와 눈 사이의 맥박이 뛰는 곳.

貫 꿰 관, 子 아들 자

14) ③ [독해(문학) - 고전 문학의 내용 이해]

정철의 <사미인곡>에서 화자는 유배지에 온 자신의 상황을 연인에게 버려진 여인의 상황인 듯 표현하여 님(임금)을 그리워하고 있다. 또한 화자는 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대신한 매화나 옷을 전하고자 한다. ③은 홍량의 시조로, 님과 이별하게 된 화자가 임에게 자신의 마음을 대신한 땃버들을 전하고자 한다. 따라서 <사미인곡>과 내용 및 주제가 가장 비슷한 것은 이별로 인한 그리움과 자신의 마음을 대신한 물건을 전하고 싶어 하는 내용인 ③이다.

[오답해설]

① 이항의 <도산십이곡> 중 일부로, 학문 수양에의 정진을 드러내고 있다.

② 조식의 시조로, 임금의 승하에 대한 애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박인로의 시조로,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작품 정리]

※ 정철, <사미인곡>

• 해제: 이 작품은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을 표현한 충신연주지사(忠臣戀主之詞)의 대표적인 가사이다. 작가인 정철은 1585년(선조 18년)에 자신의 고향인 전남 창평에서 은거 생활을 하며 이 작품을 지었다. 계절이 변화해도 변함없이 임을 그리워하는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작가 자신의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다. 「사미인곡」은 작가 정철이 이 작품의 후편으로 지은 「속미인곡」과 더불어 뛰어난 가사문학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 주제: 임금에 대한 연모의 정

• 구성

• 서사: 임과의 인연과 이별 후에 느끼는 그리움

• 본사

- 춘사: 임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

- 하사: 이별 후에 느끼는 외로움과 임을 향한 정

- 추사: 임금의 선정을 기원하는 마음

- 동사: 자신의 외로운 마음과 임에 대한 염려

• 결사: 죽어서라도 임을 따르고 싶은 충정

15) ② [어문규정 - 표준어 규정]

‘짧은 다리를 모으고 자꾸 힘 있게 솟구쳐 뛰는 모양’을 의미하는 경우 ‘강충강충’, ‘긴 다리를 모으고 계속 힘 있게 솟구쳐 뛰는 모양’을 의미하는 경우 ‘강충강충’의 큰말인 ‘경충경충’으로 쓴다. ‘강충강충’은 비표준어이다.

[오답해설]

① ‘옷을 모두 벗은 알몸뚱이’를 의미하는 경우 ‘발가숭이/벌거숭이/뽕가숭이/뽕거숭이’로 쓸 수 있다.

③ ‘구부렀다 뛴다 하지 못하고 늘 벌어진 다리. 또는 그런 다리를 가진 사람. 뻗뻗해져서 자유롭게 굽힐 수가 없게 된 물건’을 의미하는 경우 ‘벌정다리/뽕정다리’로 쓸 수 있다. ‘뽕정다리’는 ‘벌정다리’의 센말이다.

④ ‘밧을 무겁게 하여 아무렇게나 굴러도 오뎅오뎅 일어서는 어린아이들의 장난감’을 의미하는 경우 ‘오뎅이’로 쓴다.

표준어 규정 제8항		
표준어	버림	비고
강충—강충	강충—강충	큰말은 ‘경충경충’이다.
발가—숭이	발가—숭이	센말은 ‘뽕가숭이’, 큰말은 ‘벌거숭이, 뽕거숭이’이다.
뽕정—다리	뽕정—다리	—
오뎅—이	오뎅—이	부사도 ‘오뎅—이’이다.

16) ④ [이론 문법 - 높임법과 언어 예절]

제시된 ‘아래 글’에서 언급한 주체 경어법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주체를 높이기 위해 용언에 선어말 어미 ‘-시-’를 넣을 것

둘째, 여러 개 용언이 함께 나타나면 마지막 용언에 ‘-시-’를 쓸 것

셋째, 여러 개 용언 중 높임에 특화된 어휘(높임 특수 어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사용할 것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④이다.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상황에서 두 개의 용언 ‘주무시다’와 ‘가다’ 중 마지막 용언인 ‘가다’에 선어말 어미 ‘-시-’를 넣어 ‘가셨다’라고 하였으므로 첫째, 둘째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그리고 ‘자다’에 대한 높임의 특수 어휘인 ‘주무시다’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셋째 조건도 충족하고 있다.

[오답해설]

①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높임의 특수 어휘인 ‘편찮다’와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였으나(‘-세요’는 ‘-시-’와 ‘-어요’가 결합된 ‘-시어요’의 준말), 여러 개의 용언이 함께 나타난 상황이 아니므로 제시된 내용을 모두 포괄하여 설명하기에 적절한 예문이 아니다.

② 주체인 ‘어머님’을 높이기 위해 ‘돌아보시고’, ‘부탁하셨다’에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였으나 높임의 특수 어휘는 사용된 적이 없으므로 제시된 내용을 모두 포괄하여 설명하기에 적절한 예문이 아니다.

③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두 개의 용언 중 마지막 용언인 ‘웃었다’에 선어말 어미 ‘-시-’를 넣어 ‘웃으셨다’라고 하였으나, 높임의 특수 어휘는 사용된 적이 없으므로 제시된 내용을 모두 포괄하여 설명하기에 적절한 예문이 아니다.

높임법의 종류
- 주체 높임법: 행위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이며, 선어말 어미 ‘-(으)시-’, 주격 조사 ‘께서’, 접사 ‘-님’, 높임의 의미를 내포한 특수한 어휘(주무시다, 계시다, 편찮다 등)로 실현된다. - 객체 높임법: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어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이며, 높임의 의미를 내포한 특수한 어휘(드리다, 여쭙다, 뵙다

등)나 부사격 조사 '께'로 실현된다.

- 상대 높임법: 말 듣는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이며, 종결 표현으로 실현된다.

17) ② [독해(비문학) - 전개 방식 부정 발문]

'유추'란 생소하거나 어려운 어떤 내용을, 보다 친숙하고 쉬운 다른 것에 대응시켜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지문에서 유추는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해설]

① '정의'란 유개념을 통해 사물 또는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종차를 통해 그 대상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문단의 '관객이나 시청자가 읽을 수 있도록 화면에 보여 주는 글자'라는 부분이 '자막'에 대한 정의이다. '자막'에 대하여 '글자'는 유개념, '관객이나 시청자가 읽을 수 있도록 화면에 보여 주는'은 종차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③ '예시'란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이나 진술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진술 방식이다. 지문은 텔레비전에서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자막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뉴스와 영화에서 쓰이는 자막에 대한 예시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④ '대조'란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차이점 위주로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문단에 따르면 텔레비전 자막과 영화의 자막에 대해 대조의 전개 방식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영화의 자막은 타이틀과 엔딩 크레딧 ~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된다'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 ① [독해(비문학) - 배열]

지문의 도입부에는 세계 각국 정부들이 취한 공격적인 환경 보호 조치들이 언급되어 있다.

(가)는 '이러한 규제 노력'의 부정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역접의 접속어 '그러나'와 지시어 '이러한'을 통해 앞에는 '규제 노력'에 대한 긍정적 측면이나 기대 효과 등이 제시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이 중 많은 조치들'의 긍정적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대기오염'에 대한 조치를 예시로 든 것으로 보아, (나) 앞에는 '오염'에 대한 '조치들'이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긍정적 측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가 (나)보다 뒷부분에 나와야함을 알 수 있다.

(다)는 '새로운 대기 오염원'에 대한 공격적인 통제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예시의 접속어 '예를 들어'를 통해, (다)의 앞에는 '오염'에 대한 통제가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제시한 (가)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배열은 (나)-(가)-(다)이다.

19) ④ [독해(문학) - 현대 운문의 형식 이해]

지문의 밑줄 친 부분은 환유법을 사용하여 우리 민족을 형상화하고 있다. ④의 '갈날'은 '자기희생, 고통'과 같은 관념을 대치하는 환유법이 사용되었다.

[오답해설]

① 연결어 '~같이'를 사용하여 원관념인 꽃과 보조 관념인 누님을 직접적으로 연관 지어 나타내는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② '나의 마음'이라는 원관념을 '고요한 물결'이라는 보조 관념과 동일시하는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③ 무생물인 '파도'를 생물인 것처럼 표현하는 활유법이 사용되었다.

20) ① [어문규정 - 표준어 규정]

→ 배가 고파서 **공깃밥**을 두 그릇이나 먹었다.

'공기에 담은 밥'은 '공깃밥'으로 적는다. 이 합성어는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나 [공깁밥/공기뽕]으로 발음되므로 '공기'와 '밥' 사이에 사이시옷을 적는 것이다.

[오답해설]

② '인사로 하는 말. 또는 인사를 차려 하는 말'은 '인사말'로 적는다.

③ '일이 벌어진 뒤나 끝난 뒤끝을 처리하는 일'은 '뒤처리'로 적는다.

④ '편지의 형식으로 적은 글'은 '편지글'로 적는다.

21) ② [독해(문학) - 고전 산문의 형식 이해]

작가는 냇물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으며 이를 구별해 본 적이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두가 '단지 마음속에 품은 뜻이 귀로 소리를 받아들여 만들어 낸 것일 따름'이라고 하였으므로 관찰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다. 오히려 사물의 본질은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이 주제라 볼 수 있다.

[오답해설]

① 둘째 문단에서 여름철 불어남 냇물 소리를 '수레와 말, 대포와 북의 소리'라고 하며 은유를 활용하여 묘사하고 있다. 또한 셋째 문단의 '~같은', '~듯한'을 사용한 표현에서 직유를 통해 대상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셋째 문단에서 작가 자신의 집 앞에 흐르는 냇물 소리를 주의 깊게 들어 본 일상의 경험을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물소리는 '마음속에 품은 뜻이 귀로 소리를 받아들여 만들어 낸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④ 첫째 문단에서 '이곳이 옛 전경터였기 때문에 물소리가 그렇다'고 하는 다른 이의 생각을 반박하기 위해 이 글을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품 정리]

※ 박지원, <일야구도하기>

• 해제: 글쓰이는 이 글에서 자신의 도강(渡江) 체험과 평소 관찰을 바탕으로 깊은 인생의 진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내고 있다. 묘사와 서사를 이용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그것을 인간의 내적 세계와 연결 짓는 방식은 주제를 매우 뚜렷하게 부각시킨다. 일상생활에서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가운데 현상에만 얽매어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허무적대는 현대인에게 귀감이 될 만한 글이다.

• 주제

- ① 외물(外物)에 현혹되지 않는 삶의 자세
- ② 이목(耳目)에 구애됨이 없는 초연한 마음
- ③ 마음을 다스리는 일의 중요성

• 구성

- 기: 물소리와 듣는 이의 마음가짐
- 승: 흥중의 뜻에 따라 달리 들리는 물소리
- 전: 강을 건너는 자세와 내가 깨달은 진리
- 결: 인생의 태도와 세인들에 대한 경계

22) ② [어휘 - 다의어]

어떤 일을 당하거나 겪거나 얻어 가지다는 의미이므로 이때의 '보다'는 '보다'의 「16」의 뜻이다.

보다' [1] ■ 「16」 어떤 일을 당하거나 겪거나 얻어 가지다.

예) 이익을 보다. / 손해를 보면서 물건을 팔 사람은 없다.

[오답해설]

나머지 선지의 '보다'는 대상을 평가한다는 의미이다.

보다' ■ 【…을 …으로】 【…을 -게】 【…을 -고】 【…으로】 【-고】 ('…으로'나 '-게' 대신에 평가를 뜻하는 다른 부사어가 쓰이기도 한다) 대상을 평가하다.

예) 어쩔지 그의 행동을 실수로 볼 수가 없었다.

그는 상대를 만만하게 보는 나쁜 버릇이 있다.

날씨가 좋을 것으로 보고 우산을 놓고 나왔다.

23) ④ [독해(화법) - 공손성의 원리]

'동의를 격률'이란 '다른 사람과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고, 일치점을 극대화하라'는 공손성의 원리이다.

여러 침대 중 '이것'이 커서 좋다는 갑의 발화에 대해, 을은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침대가 크고 매우 우아해서 좋군요.'라며 우선 일치점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는 '동의를 격률'을 지킨 말하기라 볼 수 있다.

[오답해설]

① 자신의 요구 사항을 의문형으로 표현하여 상대의 부담을 최소화한 갑의 발화는 '요령의 격률'을 지킨 것이다. 하지만 을은 이를 거절하고 있으므로 '동

의의 격률'에 따른 대화라 볼 수 없다.

② 갑의 요구 사항을 제대로 듣지 못한 을이 '귀가 어두워서'라며 크게 다시 말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을의 말하기는 화자 자신에 대한 부담을 최대화하는 '관용의 격률'에 따른 대화이다.

③ 갑도 을도 자신이 '부족'하다며 겸양의 격률에 따라 대화하고 있다.

I 공손성의 원리

- 요령의 격률: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표현을 최대화하라.
- 관용의 격률: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부담을 주는 표현을 최대화하라.
- 찬동의 격률: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은 최소화하고, 칭찬을 극대화하라.
- 겸양의 격률: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비방을 극대화하라.
- 동의의 격률: 다른 사람과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고, 일치점을 극대화하라.

24) ① [어휘 - 고유어]

'동냥'은 고유어이다.

동냥: 승려가 시주를 얻으려고 돌아다니는 일. 또는 그렇게 얻은 곡식.

[오답해설]

나머지는 모두 한자어이다.

② 구걸(求乞): 돈이나 곡식, 물건 따위를 거저 달라고 빌. ≡ 걸구.

求 구할 구,乞 빌 걸

③ 중생(衆生): 「1」 많은 사람.

「2」 『불교』 모든 살아 있는 무리. ≡ 살타, 제유, 회생.

衆 무리 중,生 날 생

④ 자비(慈悲): 「1」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

「2」 『불교』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없게 함.

慈 사랑 자,悲 슬플 비

25) ④ [어문규정 - 로마자 표기법]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ㅇ'이 따를 때에는 'ㅇ'을 밝히 적으므로, '북한산'의 'ㅇ'을 살려 적는다. 또한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북한산[부칸산]'은 'Bukhansan'으로 표기한다.

[오답해설]

①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ㄴ'첨가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또한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쓰며,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따라서 '북연필'은 'Bok Yeonpil(Bok Yeon-pil)'로 표기한다.

②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청와대'의 표준 발음은 '[청와대]'이며 'ㄱ'은 'eo'로 표기한다. 따라서 '청와대[청와대]'는 'Cheongwadae'로 표기한다.

③ 자음 동화(유음화)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므로, '한'을 소리 나는 대로 '할'로 표기한다. 'ㄹㄹ'은 'll'로 표기한다. 또한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한라산[할라산]'은 'Hallasan'으로 표기한다.

I 로마자 표기법에서 붙임법의 용도

- 발음상의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Se-un)
- 사람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Yong-ha)
-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Yangju-gun)
-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에는 붙임표(-)를 넣지 않는다.

(Songnisan)